KARDIAN
카 디 안 자 산 운 용

판매회사 내부직원용

카디안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6-515호(2026.10.08 ~ 2026.12.31)

카디안 퇴직연금 업종일등 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026년 09월말 기준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국내 국공채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채권증권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주식증권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40% 이하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카디안 퇴직연금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이 투자신탁은 국내 국공채 등을 주된 투자 대상 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등에 투자하여 신용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함께 투자한 채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추구합니다.
-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비교지수 대비 펀드의 목표 듀레이션을 결정한 후, 국채와 공사채 및 회사채 또는 단기채권과 장기채권 간의 상대가치를 분석하여 섹터 및 수익율 곡선상 자산배분 비율을 결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의 확보를 추구합니다.
- 수익률 제고와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 추구를 위하여 회사채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는 투자 유니버스 내에서 신용도 개선이 예상되거나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 되어 있는 섹터 또는 종목 위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카디안 퇴직연금업종일등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철저하게 분업화 된 업종별 담당 애널리스트에 의한 실사 중심의 리서치와 상향식(Bottom-up)투자 방식의 기본적 분석에 기초하여 투자대상 종목을 선정합니다.
- 상향식(Bottom-up)투자방식에 근거한 일관된 투자 프로세스를 유지하기 위해 모델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운용합니다.
- 기본적 분석과 함께 하향식(Top-down)투자방식을 일부 적용하여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자산배분 전략 보다는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선정에 역량 집중합니다.
- 단기적인 시황관에 근거한 적극적인 주식편입 비율의 조정은 지양하며, 중대한 시장 모멘텀 변화시 주식편입비중을 조절합니다.
- 리스크관리팀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361억 원

-채권모투자신탁 1,050억 원

-주식모투자신탁 986억 원

펀드유형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채권편입비: 60% 이상
- 주식편입비: 40% 이하

설정일

(운용펀드 : 2006년 01월 05일)

- 클래스 C : 2011년 11월 01일
- 클래스 C-E : 2017년 08월 18일
- 클래스 C-F : 2012년 03월 30일

벤치마크 KOSPI 35% + 매경BP종합(국공채) 40% + 매경BP종합(A-이상회사채2~3년) 20% + KAP Call 5%

신탁업자 국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3영업일	4영업일
17시 경과후	4영업일	5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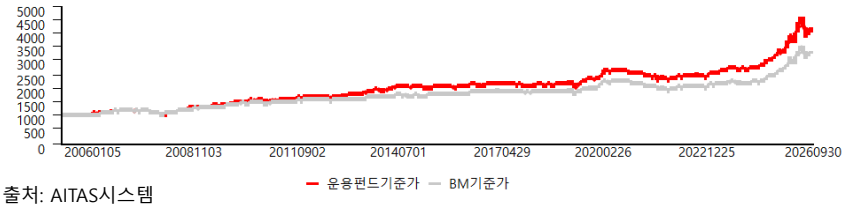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위험)

1	2	3	**4**	5	6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0.53%	-8.40%	12.73%	31.77%	54.49%	67.95%	60.19%	310.34%
클래스 C	0.46%	-8.58%	12.30%	30.75%	52.08%	64.03%	53.95%	144.08%
클래스 C-E	0.48%	-8.52%	12.44%	31.09%	52.88%	65.33%	56.01%	86.37%
클래스 C-F	0.50%	-8.46%	12.57%	31.39%	53.60%	66.49%	57.86%	145.68%
벤치마크	0.12%	-5.99%	13.96%	30.53%	47.91%	58.44%	47.37%	224.09%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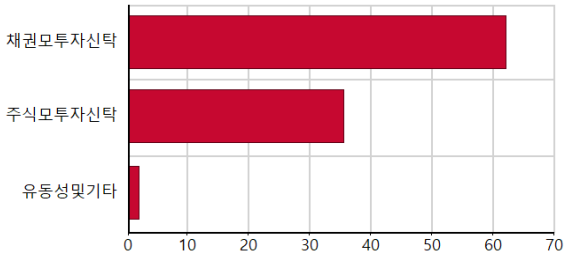


출처: AITAS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09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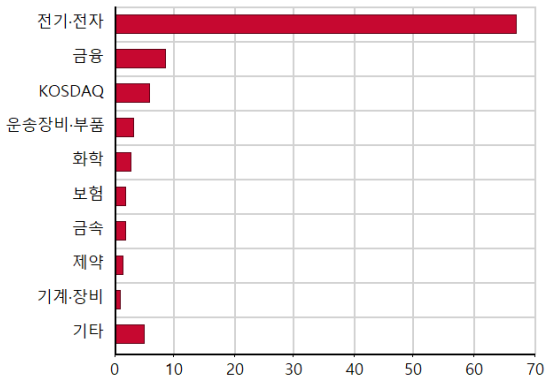
<전체>

순위	자산명	비중(%)
1	채권모투자신탁	62.3
2	주식모투자신탁	35.7
3	유동성및기타	2.0



<주식 업종별> 주식모투자신탁 편입 비중

순위	업종명	비중(%)
1	전기·전자	67.1
2	금융	8.6
3	KOSDAQ	6.2
4	운송장비·부품	3.3
5	화학	2.8
6	보험	1.9
7	금속	1.8
8	제약	1.7
9	기계·장비	1.3
10	기타	5.3



자산별 상위 보유 종목 (2026년 09월말 기준)

채권TOP5	비중(%)
국고채권03500-2906(26-5)	10.4
국고채권03625-2809(26-7)	9.5
삼성증권25-2	7.7
산금26신이0106-0721-1	4.8
국고채권04250-3606(26-6)	4.8

주식TOP5	업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31.2
SK하이닉스	전기·전자	25.0
SK스퀘어	금융	2.6
삼성전기	전기·전자	2.3
삼성SDI	전기·전자	1.5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KARDIAN
카 디 안 자 산 운 용

판매회사
내부직원용

카디안 퇴직연금 업종일등 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026년 09월말 기준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C : 총 연 0.8% (판매 0.535%)
- 클래스 C-E : 총 연 0.533% (판매 0.268%)
- 클래스 C-F : 총 연 0.295% (판매 0.03%)

(공통사항)

운용 0.23%, 신탁 0.02%,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9월 KOSPI는 전월 대비 0.26% 상승한 6,838.04pt, KOSDAQ은 2.59% 상승한 855.91pt로 마감했습니다. 월초 중동지역 무력 충돌이 다시 불거지며 국제유가와 미 금리가 크게 오르자 KOSPI 지수는 약 4%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CXMT의 HBM(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소식으로 반도체 투자심리까지 위축됐지만, 오픈AI 신규 모델 공개에 따른 메모리 수요 기대치 상향과 미국 반도체주의 강세에 힘입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며 지수는 반등했습니다. 이후 KOSPI는 7,000pt선을 회복하기도 하였으나 중동발 원유 공급 차질 우려에 따른 유가 상승과 미국 장기금리 상승으로 물가 부담과 미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커졌고, AI 투자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며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자 긴축 우려가 주가에 이미 선반영 되었다는 인식에 주가 하락폭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월 후반 반도체 대형주 강세와 자사주 매입, 유가 하락에 힘입어 지수는 재차 상승세를 보였으나 월말 PCE 물가지표와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며 KOSPI는 6,800pt선에서 한 달을 마무리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정유, 인터넷 업종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자동차, 화장품, 자동차부품 업종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8.40원으로 전월 대비 1.31% 하락했고, WTI유가는 전월대비 5.43% 상승한 90.4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는 기관이 4.7조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23.0조원, 13.0조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KOSDAQ150 IT, 자동차 등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화장품, 철강, 정유 업종이 성과에 부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의 반등과 배당 효과, 삼성전자 후공정 밸류체인인 엑시콘과 SFA반도체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삼성SDI, 삼아알미늄 등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차익실현과 삼양식품의 주가 조정이 펀드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차전지에 대해서 일부 비중을 차익실현하고 반도체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반도체 장비 및 소재에 대한 비중을 상향하였습니다. 조선의 경우 AI 전력투자와 연동된 엔진 밸류체인에 대한 비중을 일부 확대하였고, 화장품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수출 상승을 기반으로 저가 매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제약 업종과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 및 자동차 관련 밸류체인에 대하여 비중을 축소하였습니다. 금리 상승 구간의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 업종에 대한 비중을 상향하였습니다.

9월 채권시장은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우려가 맞물리며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8월 비농업고용이 시장 예상을 상회한 데 이어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미 재무부의 장기채 바이백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대외 금리 상승 압력이 재차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생산자물가와 근원 소비자물가가 예상을 상회하며 9월 FOMC 인상 전망이 강화되었고, 외국인 매도세까지 더해지면서 국고채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월 중순에는 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WTI가 배럴당 105달러를 상회하며 국내 물가 경계가 확대된 가운데, ECB에 이어 FOMC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BOJ도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주요국의 긴축 기조가 강화되었습니다. 월 후반에는 국제유가 하락과 연휴를 앞둔 단기물 캐리 수요, 9월 모집 방식 국고채 미발행 소식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추석 연휴 중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 금리 급등이 국내 시장에 반영되면서 월말 채권시장 약세가 재차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월 대비 17.5bp 상승한 4.015%, 10년 금리는 10.5bp 상승한 4.415%로 마감하였습니다.

전월 말 대비 금리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펀드 듀레이션을 벤치마크 대비 -0.06년 ~ +0.15년 수준으로 운용하였고, 이는 펀드 성과에 중립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커브의 경우 전월 말 대비 금리 상승폭이 적었던 10년 이상 구간을 벤치마크 대비 비중 축소 운용을 지속한 점이 펀드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섹터는 전월 말 대비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된 2년 이하 여전채 벤치마크 대비 확대 운용을 지속한 점이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10월 KOSPI 지수는 저점을 높여가는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8월 중순 이후 KOSPI 지수는 6,400~7,050pt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급등, AI 속도 조절 우려, 중동 사태 등으로 지수가 여러 차례 큰 폭의 조정을 겪었으나, 하락 이후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장의 하방 지지력을 확인했습니다. 10월에도 대내외 이벤트 및 미국 시장금리 움직임에 따른 변동성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가 이미 시장의 컨센서스가 되었고, 금리 수준보다는 상승 속도가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9월에 비해 금리 부담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수는 9월 CPI와 고용,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10월 FOMC 등을 확인하며 점진적인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에는 반도체, 하이퍼스케일러 등 주도주들의 3분기 실적 시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선 9월 말 마이크론의 실적발표에서 강력한 AI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들의 충당금 설정, 환율 하락으로 인한 컨센서스 하향에 대한 우려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시적 시즌에는 발표 수치보다 기업들이 제시하는 향후 업황 전망이 더 중요해질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대형주 중심의 수급이 중소형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도주에 대한 집중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면서 9월 이전과 같은 극심한 업종 순환매는 일단락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고금리 환경에 대응하여 이익 모멘텀이 견고한 업종들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5.3%를 돌파하였고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갈등 지속이 고유가를 지지하며 국내 증시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9월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함에 따라 증시의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 8월 물가지수는 비교적인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였고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인해 전월 대비 미국의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으로 판단됨에 따라 변동성은 있으나 점진적인 우상향의 기조를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수의 하방 경직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미국의 장기금리, 유가, 환율 등에 따라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해당 요인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며 펀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고금리 환경에 대한 민감도를 헷지하기 위해 금리 인상시 수혜가 예상되는 은행과 보험에 대한 익스포져를 유지 또는 강화할 계획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함에 따라 실적 기대치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업종 중심으로 투자하여 초과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의 낙수 효과가 예상되는 반도체 장비 및 반도체 후공정 밸류체인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북미 ESS 투자 수혜가 예상되는 2차전지 업종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존재하나 지속적으로 수출이 우상향하고 있는 화장품 및 정유 등에 대해서도 실적 모멘텀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시장의 우려감으로 인해 펀더멘탈 대비 가격 조정이 컸던 업종 및 종목에 대한 비중을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균형감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는 수출 호조와 견조한 성장세,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금리 3.50% 수준까지의 인상 경로는 시장금리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대외 긴축 압력과 국제유가·환율 등 대외 여건이 재차 악화될 경우 Terminal Rate가 3.75%까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기 회복력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경계가 이어지고 있어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 기조가 빠르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히 AI 투자 사이클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력이 예상보다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국채 공급 부담 역시 글로벌 금리의 하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수급 측면에서는 10월 국고채 경쟁입찰 규모가 당초 계획 대비 5조원 축소되면서 연말까지 공급 부담이 기존 예상보다 완화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발행 규모 조정과 바이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점 역시 수급 측면에서 우호적인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9월 금리 급등 이후 최근 나타난 되돌림이 추가로 이어질 여지는 있으나, 국내외 Terminal Rate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국고채 금리는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고채 3년 3.75~4.15%, 국고채 10년 4.25~4.65%의 금리 레인지를 전망합니다. 펀드 듀레이션은 국내 수급 부담 완화에도 불구,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및 글로벌 장기금리 급등세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벤치마크 대비 소폭 확대된 현 수준 유지하는 가운데, 박스권 상하단 접근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딧 시장은 9월 국고채 금리 급등과 변동성 확대에도 스프레드의 급격한 확대는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월에도 높은 절대금리에 따른 캐리 매력이 투자수요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내외 추가 긴축에 대한 경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고채 금리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크레딧 투자심리 역시 금리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스프레드 확대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공사채와 은행채를 중심으로 공급 부담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은행채는 4분기 대규모 만기 도래와 계절적인 수신 변동성에 대비한 조달 수요로 발행 경계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공사채 역시 공공기관 재무계획과 정책성 자금 조달 등에 따른 발행 부담이 상대적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은행 수신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경우 시장성 조달 수요가 완화될 수 있고, 공적채권 발행 계획 역시 점차 구체화되는 만큼 상위등급의 공급 부담이 일방적으로 확대되기보다는 발행 규모와 시장 소화 여부에 따른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여전채와 회사채는 높은 절대금리에 따른 캐리 매력과 기관 자금 유입이 수요를 지지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특수/국고 3Y Spread 30~40bp, 은행/국고 3Y Spread 32~42bp, 여전AA-/국고 3Y Spread 68~78bp, 회사AA-/국고 3Y Spread 62~72bp를 전망합니다. 따라서 펀드는 롤링 효과가 제한적인 1년 이하 크레딧물 비중 축소 유지 및 상대적으로 절대금리 메릿과 롤링효과가 좋은 1.5~2년 구간 위주 크레딧 편입 포지션을 확대하여 펀드 YTM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